

조선조 담·굴뚝에 나타나는 전·와편 장식문양의 유형

-조형 특성을 중심으로

Decorative Bricks and Roof Tiles used in Walls and Chimneys in the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이기석(Lee Gi-Suk)

近畿大學大學院

工藤 卓(Kudo Takashi)

近畿大學 디자인學科 教授

1. 서론

2.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3. 조선조 및 조선조 이전의 담과 굴뚝의 양상

- 3-1. 담
- 3-2. 굴뚝

4. 수집된 문양과 형(型)의 유형

- 4-1. 문양의 유형
- 4-2. 대상별 유형과 문양
- 4-3. 건축종별 유형과 문양
- 4-4. 구성재료별 유형과 문양
- 4-5. 장식기법별(조적법) 유형과 문양

5. 유형 항목 상호의 관련성

- 5-1. 대상별·건축종별과 구성재료별 관련성
- 5-2. 대상별·건축종별과 장식기법별 관련성
- 5-3. 장식기법별과 구성재료별 관련성

6. 결론 및 금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조사대상지 일람

(要約)

조선조(1392~1910)의 궁궐·사원·상류민가의 담과 굴뚝에는 장식 문양이 다채로운 조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도자벽 제작에 관한 환경디자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전(塼)과 와편(瓦片)으로 만들어진 조선조 담과 굴뚝의 전통적인 장식문양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그 조형의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전국에 걸쳐 현지조사에 의해 수집된 685점의 문양 18종을 유형별, 대상별, 건축종별, 구성재료별, 장식기법별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상호 조형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조선조의 담과 굴뚝에 나타나는 장식문양은 유형마다 명확한 조형의 차이와 공통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다. 또, 이들 문양의 유형을 궁궐형·사원형·민가형으로 종합하여 보면 일부의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각각의 유형은 독특한 조형적 규범을 갖고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궁궐형의 담과 굴뚝은 궁궐전유(專有)의 붉은색과 회색의 전을 사용해서 정교한 길상(吉祥)과 벽사(辟邪)문양을 조형화하고, 사원형과 민가형에서는 구조보강을 겸하여 와편을 겹쳐 쌓은 문양을 수평으로 연속시켜 조형화한 것이 담과 굴뚝의 기본적인 장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e Chosun Dynasty (1392-1910), the walls and chimneys of palaces, temples, and the houses of the upper-class show various characteristics of decorative design patterns. This study investigated ceramic bricks and roof tiles, which is one aspect of environmental design studie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typology of traditional Korean design of bricks and roof tiles used in walls and chimneys, and to show the design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llected 685 designs of bricks and roof tiles, and divided them into 18 categories and 5 types of design patterns based on object figures, architectural styles, materials, and decorative methods. In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mong the design patterns. In general, the palaces mostly used red, gray, and black bricks that had more detailed designs presenting auspicious signs or exorcism. But, temples and the houses usually used (black) roof tiles horizontally configured with the edges overlapping to decorate as wall as to strengthen their structure.

(Keyword)

Brick Wall, Chimney, Chosu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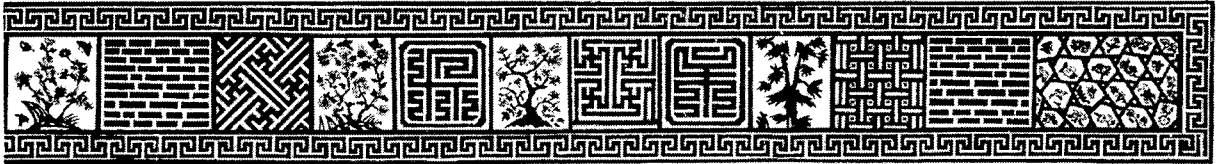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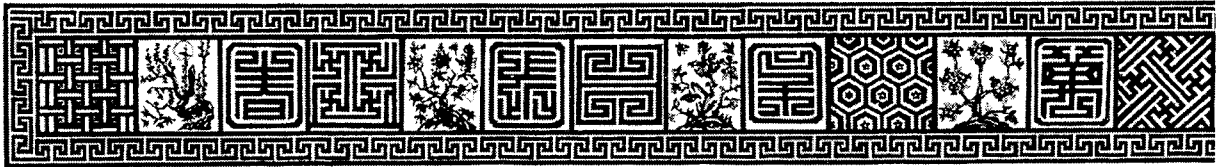


그림 1. 경복궁 자경전의 화문장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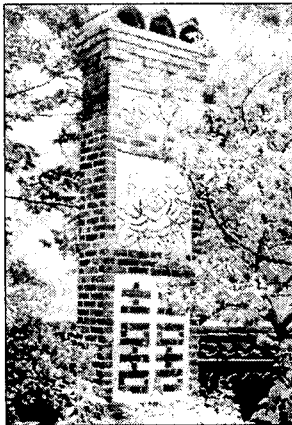


그림 2. 남부지방 대가
(용인민속촌)의 장식골뚝

표 1. 장식문양의 조사지역수와 채취사레수(그림 3의 조사 대상지와 대응)

지역	궁궐			사원			민가		
	개소	담	골뚝	개소	담	골뚝	개소	담	골뚝
①서울	5	43	14				3	3	2
②경기도							3	3	5
③강원도				1	3	2	15	4	13
④충청북도				1	3	5	1	3	
⑤충청남도				2	1	6	5	1	14
⑥전라북도				3	3	3	6	7	8
⑦전라남도				6	28	8	4	5	2
⑧경상북도				2	4	7	31	37	8
⑨경상남도				3	13	6	7	7	9
계	5	43	14	18	55	37	75	70	61
		57			92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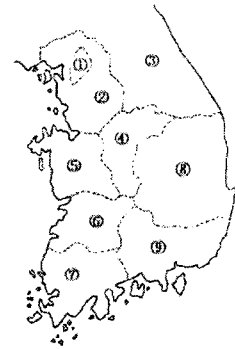


그림 3. 조사대상지역

1. 서론

조선조의 궁궐, 사원, 민가의 일부에서는 전이나 와편을 이용해서 장식된 담과 골뚝이 축조되어 왔다(그림 1, 그림 2).

이들 담과 골뚝은 한국의 역사적인 건축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에 전개된 문양은 불로장수·초복 등의 길상이나 사악을 쫓는 벽사의 기원을 조형화 한 것도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어 선조들의 행복한 생활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장식문양으로서 친숙해져 있다.

담과 골뚝에 문양을 만드는 소재로서는 그것들이 축조되는 지역의 흙을 소성해서 만드는 전과 와편이 쓰여졌다. 붉은색과 회색의 2종류의 전은 회화적이고 구상적인 도자재나 벽돌상태의 선재로서, 모르타르제인 흰색 삼화토를 이용해서 구성되는 문양표현에 이용되었다. 또, 지붕기와를 재활용한 와편은 담이나 골뚝의 구조보강제이자 외관을 장식하는 소재로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조선조의 담과 골뚝에 나타나는 문양을 한국적인 것을 표현한 환경조형의 일부로서 취급하여 우리고유의 전통적인 장식문양으로서 문화적인 자리매김과 역할을 검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개되는 환경조형물의 디자인, 특히 도자벽디자인과 제작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 제 1단계로서 이들 장식문양의 유사점을 찾아 유형화를 시도한 것으로, 문양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들 조형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담이나 골뚝의 문양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문양을 사진소개하고 그 의미와 기법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예를 들면, 신영훈·조정현의 『한옥의 건축도예와 문양』이나 조정현의 『꽃담』에서는 궁궐의 담과 골뚝의 문양에 주목하여 그 문양의 표현기법과 의미·내용을 해석하고, 신영훈 등의 『한국의 고궁건축』에서는 십장생골뚝과 장식화문담을 소개하며 그 문양의 기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궁궐·사원·민가를 망라하여 전과 와편 문양의 총체를 유형화에 의해 나타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의 역사적 건축물에 관한 문헌 및 문양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참고해서 국내 전지역에서의 현지조사에 의한 담과 골뚝의 사진촬영과 실측기록을 실시하여, 문양으로 장식된 대상, 건축종류, 구성재료, 장식기법 등의 조사자료의 분석에 의해 전과 와편의 문양을 유형화 한다.

현지조사는 제주도(대상자료가 없음)를 제외한 9지역을 1998년 1월~11월에 실시하였다. 또한 2001년 4월~6월까지 추가 조사를 하여 특히 궁궐 건축물의 복원을 위한 개·보수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완하였다. 조사대상은 현존하는 조선조의 궁궐·사원·민가의 담과 골뚝을 장식하는 전과 와편의 문양으로, 전통건축물(보물이나 사적, 중요민속자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촌,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등으로 지정)에 속해있는 것에 한하여 선정했다(표 1, 그림 3)¹).

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 5453호 제2조 및 6, 7, 8조

3. 조선조 및 조선조 이전의 담과 굴뚝의 양상

3.1 담

『삼국사기』의 옥사조²⁾에 의하면, 신라시대(AD356~935년)에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던 관직계층에 따라 축조 가능한 건물물의 규모와 형상이 규제되어 있었다. 2위 계층인 진골은 담의 지붕에 양동(도리와 들보)을 설치할 수 없었고, 또 석회를 마감재로 바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진골의 다음 직위인 6두품 가옥의 담은, 높이에도 제한이 있어 8척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5두품의 담 높이는 7척을, 4두품의 경우는 6척을 넘지 않도록 규제되어 있었다³⁾. 이와 같은 관위별 담의 형태와 높이의 규제는 조선조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고려시대(AD 918~1392년)에는 궁궐과 상류계급의 민가의 담이 대단히 호화로웠다는 것이 『고려사절요』⁴⁾에 나타나고 있다.

조선조의 담의 축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산림경제』⁵⁾에는, 담은 집 주변의 전체를 둘러싸게 하여야 하며, 담의 배치와 형상에 의해 길상과 흉상이 나타난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 『임원십육지』⁶⁾에는 집을 짓기 전에 담을 쌓는 것은 좋지 않으며, 대문의 양측 담의 높이는 같아야만 한다고 쓰여져 있다. 조선조 궁궐의 담은 화장(華牆), 화문장(花文牆), 화초장(花草牆), 분장(粉牆), 영롱장(玲瓏牆), 취벽(翠壁) 등으로 장식문양에 따라 불리워졌다⁷⁾. 예를 들면 그림 1의 경복궁 자경전의 담은 붉은색 전을 이용한 화문장으로서, 문양의 높이 1.7m, 전체 폭 21.56m에 이르며, 운기문, 문자문, 식물문, 교직문 등 다채로운 문양이 어우러져 있다.

3.2 굴뚝

굴뚝은 온돌이 난방수단이었던 한국건축의 전통적인 구조물이다. 고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4~7세기)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각 방에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⁸⁾. 이들 굴뚝의 문양은 담이나 지붕의 합각, 창호 등의 문양과 조화되며, 길상과 벽사를 기원하는 문양으로 장식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의 굴뚝은 경기도 용인민속촌의 조선조 말기에 축조된 민가건축으로 「龕」문자와 식물(꽃)문에 의해 장식되어 있다.

굴뚝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뒷편에 단독으로 축조된 것, 담의 일부를 겸해서 축조된 것, 건물의 외벽에 간단히 붙여 만든 것 등 3종류가 있다. 이 중 문양이 장식된 굴뚝은 단독으로 축조된 것과 담을 겸용한 것으로, 궁궐이나 사원, 상류민가의 굴뚝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굴뚝은 외부공간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본래 굴뚝의 기능이외에 정원을 구성하는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많은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처럼, 온돌이나 아궁이에 필수적인 구조물이었던 굴뚝에 담이나 지붕의 장식과 연계한 문양 등으로 장식함으로써, 그 건축물의 성격과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4. 수집된 문양과 형(型)의 유형

그림 3에 나타난 조사지역의 168사례의 담과 112사례의 굴뚝으로부터, 총계 685점의 문양을 수집하였다. 이어서 이들 문양을 비교하고 유사점을 분석하여 각각의 유형항목을 작성하였다. 표 2에서는 가로축에 문양의 종류와 그 형(型)의 항목을 배치하고, 세로축에 문양의 대상별, 건축종별, 구성재료별, 장식기법별 각 항목을 배치하고 있다. 또 그림 4에는 각각의 문양의 대표적인 사례를 문양형의 유형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 표는 수집된 문양을 항목별로 모아 정리한 것으로, 문양의 실태와 조형의 특성을 상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4.1 문양의 유형

수집한 담의 문양 436점, 굴뚝의 문양 249점을 문양별로 분류하면 18종으로 나뉘며, 그 문양을 구성하는 형(型)을 5종류로 유형화하였다. 즉, 직선문양형에는 ①부터 ⑧까지, 면+직선문양형에는 ⑨와 ⑩, 곡선문양형에는 ⑪부터 ⑬까지, 구상적 형상문양형에는 ⑭부터 ⑯까지, 그리고 혼합문양형에는 ⑰ 및 ⑱의 문양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18종류의 문양의 명칭은 한국의 전통적 문양을 불러왔던 명칭이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문양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들 18종류의 문양 중 길상을 나타내는 문양은 ①운기문(運氣文) ②문자문 ⑤회문(回文) ⑥영롱문 ⑩환상금문(環狀錦文) ⑫파상선문 ⑭동물문 ⑮식물문 ⑯십장생문 ⑰일월성신문(日月星辰文) 등 10종류이고, 벽사를 나타내는 문양은 ③수직교직문 ④사선교직문 ⑨육각석쇠문 ⑩능형석쇠문 ⑭동물문으로 5종류이다. ⑭동물문은 문양별로 길상과 벽사를 동시에 표현한다. 그 이외 ⑦수평점선문 ⑧빗살문 ⑬자유곡선문 ⑱기타 4종류는 특정한 의미내용을 조형화 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장식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이들 문양의 상세한 의미와 역사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양의 5유형과 다른 유형항목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본다.

(1) 직선문양형: 문양에 직선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문양을 모아 놓은 유형이다(그림 4-1). ①부터 ⑥까지의 6문양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궁궐의 담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구성재료는 붉은색 장방전+삼화토로, 그 장식기법은 기하학문양쌓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⑦수평점선문 ⑧빗살문은 주로 사원과 민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구성재료로서 와편을 이용하며, 장식기법으로는 눈박이쌓기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또한 ③수직교직문 ④사선교직문은 궁궐의 담에서만 볼 수 있으며, 장방전과 삼화토를 이용해서 기하학문양쌓기로 만들어진 문양이었다. ⑥영롱문은 궁궐과 민가의 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장방전+삼화토만으로 구성되며, 궁궐의 것은 기하학문양쌓기로 민가의 것은 영롱쌓기로 되어있다.

(2) 면+직선문양형: 직선구성 중에 전으로 면을 구성한 문양을 모아 놓은 유형으로(그림 4-2), ⑨육각석쇠문 ⑩능형석쇠문은 궁궐의 담에서만 볼 수 있으며, 붉은색 장방전과 삼화토에 의

2) 삼국사기, 권 제 33, 지 제2 옥사조
 3)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造龕尺으로 대략 唐尺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1尺=29.5765~29.84cm이다. (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미, 기문당, 172, 1987)
 4) 고려사절요, 권 지 8, 예종 문호대왕 8년(1113)
 5) 홍만선: 산림경제 제1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38, 1982
 6) 서유구: 임원십육지 2-2권,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384-388, 1966
 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380, 1996
 8)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46-147, 1995

표 2. 채취문양의 유형

문양과 형의 유형 문양의 종별 유형		직선문양형								면·직선문양형		곡선문양형			구상적형상문양형			혼합문양형		계	
		① 윤기문 () 문자문	② 문자문	③ 수직교직문	④ 사신교직문	⑤ 회문	⑥ 평행문	⑦ 수평점선문	⑧ 빗살문	⑨ 육각석쇄문	⑩ 평행석쇄문	⑪ 환상문	⑫ 파상선문	⑬ 자유곡선문	⑭ 동물문	⑮ 식물문	⑯ 신상문	⑰ 일월문	⑱ 기타문양		
대상별	담	50	102	4	11	44	10	81	32	22	9	5	14	12	5	22		6	7	436	685
	굴뚝	6	24					82	3			9	1	72	35	1		16	249		
건축종별	궁궐	담	49	99	4	11	41	9	10		22	9	5		5	19		1	2	286	413
		굴뚝	4	20											72	30	1			127	
	사원	담		2			1		35	9			12	4				5	2	73	120
		굴뚝							32	3			7	1					4	47	
민가	담	1	1			2	1	36	23			2	8					3	77	152	
	굴뚝	2	4					50				2			5			12	75		
구성재료별	장방전+삼화토	담	50	99	4	11	41	10	10		22	9						1	1	258	282
		굴뚝	4	20																24	
	형상문양전+삼화토	담											5		5	19			2	31	68
		굴뚝													6	30	1			37	
	부조전	담													66					66	66
		굴뚝																			
	외편+흙	담		1			3		37	16			8	3		3			4	75	114
		굴뚝							26	3			5						5	39	
	외편+흙+석회	담		2					10	1			1	3						17	90
		굴뚝	2	4					47				4	1		5			10	73	
외편+흙+돌	담							24	15			5	6				5		55	65	
	굴뚝							9										1	10		
장식기법별	기하학문양쌓기	담	50	99	4	11	41	9	10		22	9								255	279
		굴뚝	4	20																24	
	별지화쌓기	담											5		5	19			2	31	68
		굴뚝													6	30	1			37	
	부조전쌓기	담													66					66	66
		굴뚝																			
	영롱쌓기	담						1												1	1
		굴뚝																			
눈박이쌓기	담		3			3		71	31			14	10		3		6	5	146	262	
	굴뚝	2	4					82				8	1		5			14	116		
외편영비겨쌓기	담								1				2						3	9	
	굴뚝								3			1						2	6		
각항목별 소계		56	126	4	11	44	10	163	35	22	9	5	23	13	77	57	1	6	23	685	
문양형별 소계 (총계에 대한 비율)		449(65.6%)								31(4.5%)		41(6.0%)			135(19.7%)			29(4.2%)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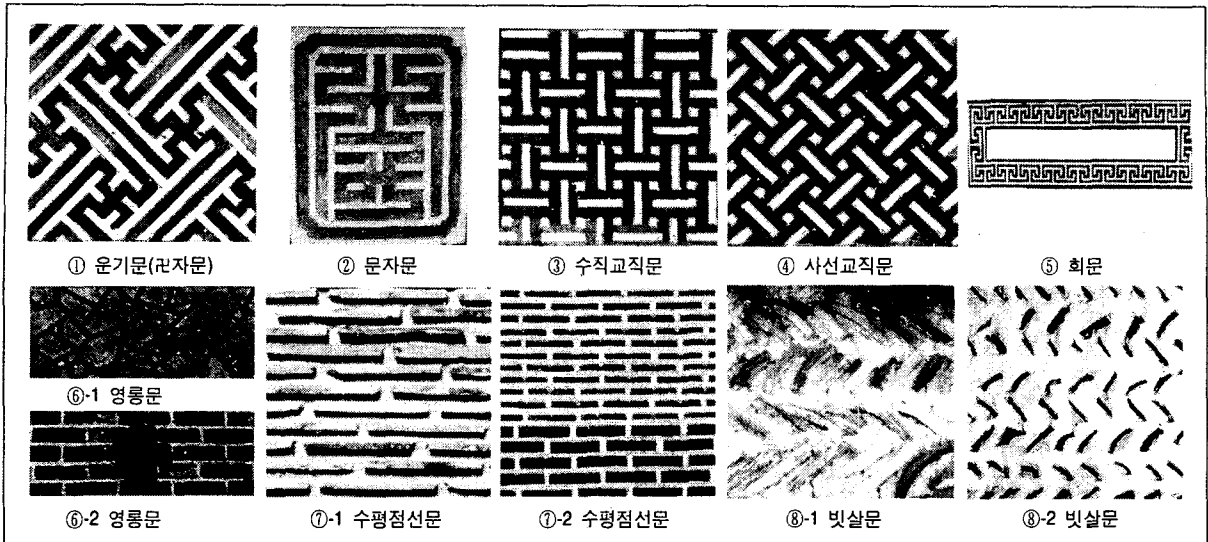
해 기하학문양쌓기로 구성되어 있다.

(3)곡선문양형: 곡선으로 제작된 전이나 기와의 곡선부분을 회화적으로 조형화 한 문양을 모은 유형으로(그림 4-3), ⑫파상선문 ⑬자유곡선문은 사원과 민가의 담과 굴뚝에서 거의 같은 빈도로 볼 수 있으며, ⑬자유곡선문은 민가의 굴뚝에서는 볼 수 없는 문양이다. 이들 문양의 구성재료는 전부가 외편으로 장식기법은 눈박이쌓기와 외편영비겨쌓기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⑩환상문 5점은 궁궐의 담에만 장식되어 있는 문양으로서, 형상문양전+삼화토를 이용해서 별지화쌓기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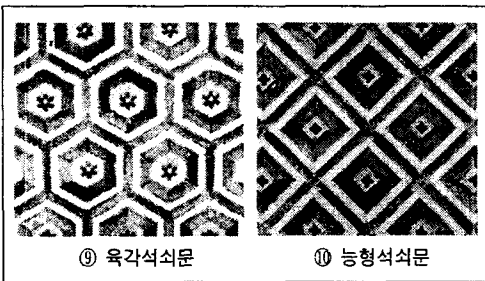
(4)구상적 형상문양형: 동물이나 식물을 구상적으로 표현한 3종류의 문양을 모아놓은 유형이다(그림 4-4). 건축종별을 보면 그 대부분이 궁궐에 이용되었고, 이들 중 형상문양형+삼화토를 구성재료로 한 것은 전부가 별지화쌓기로, 부조전을 구성

재료로 한 것은 전부가 부조전쌓기로 시문되었다. 또 ⑭동물문은 형상문양전 또는 부조전에 의해 만들어지며, ⑮식물문으로서 사원의 3점과 민가의 5점은 모두가 외편을 소재로 눈박이쌓기로 장식한 것이다. 특히 부조전에 의한 문양은 모두가 동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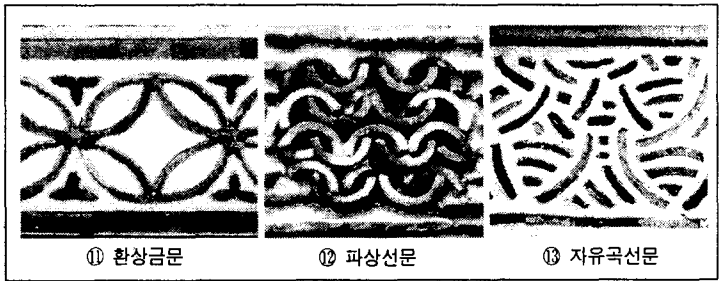
(5)혼합문양형: 2종류 이상의 문양이 혼합되어 있는 문양을 모아놓은 유형으로 전체 숫자는 29점으로 많지 않다(그림 4-5). ⑰일월성신문은 궁궐과 사원에서 볼 수 있고 민가에서는 볼 수 없는 문양으로, 궁궐의 문양은 장방전+삼화토를, 사원의 문양은 외편을 원형의 화강석제와 섞어 구성재료로 이용하지만, 장식기법은 양쪽 모두 눈박이쌓기이다. 또 ⑱기타문양은 사원과 민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많고, 구성재료는 암·수기 외에 흙과 석회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장식기법은 눈박이쌓기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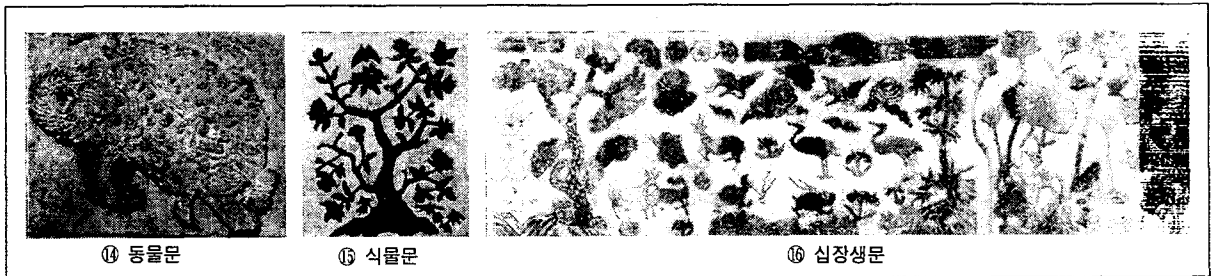
4-1 직선문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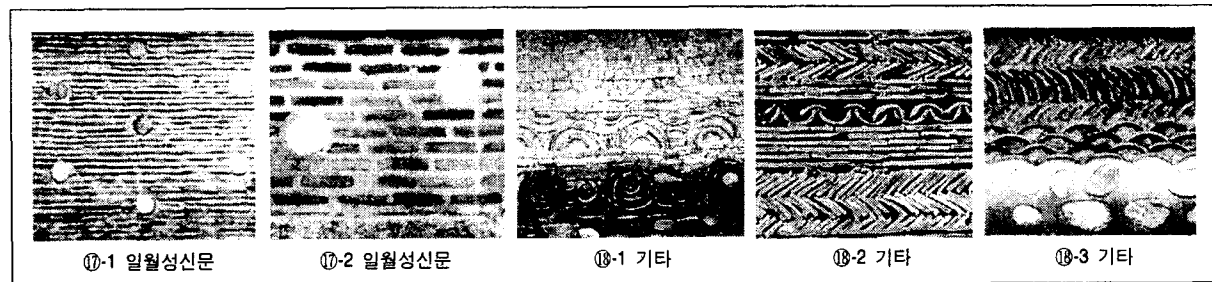
4-2 면+직선 문양형



4-3 곡선문양형



4-4 구상적 형상문양형



4-5 혼합문양형

그림 4. 18종류 문양과 유형

4.2. 대상별 유형과 문양

다음으로 시문대상의 구분인 담·굴뚝과 각 문양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본다.

(1)담의 문양: 담에는 17종류의 문양이 나타난다. 이 중 ③수직교직문 ④사선교직문 ⑤회문 ⑥영룡문 ⑨육각석쇠문 ⑩능형석쇠문 ⑪환상금문 ⑰일월성신문 등 8종류의 문양은 담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이었다. 이 중에서 ⑤회문 ⑨육각석쇠문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어느 것이나 직선문양을 포함한 문양이다.

(2)굴뚝문양: 18종류 중 10종류의 문양을 굴뚝에서 볼 수 있다. 굴뚝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은 아니지만, 담보다도 굴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양은 ⑭동물문 ⑮식물문 ⑱기타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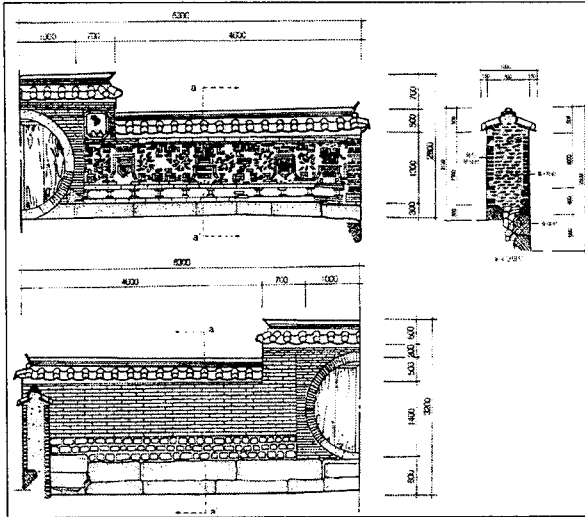


그림 5. 창덕궁 낙선재후원의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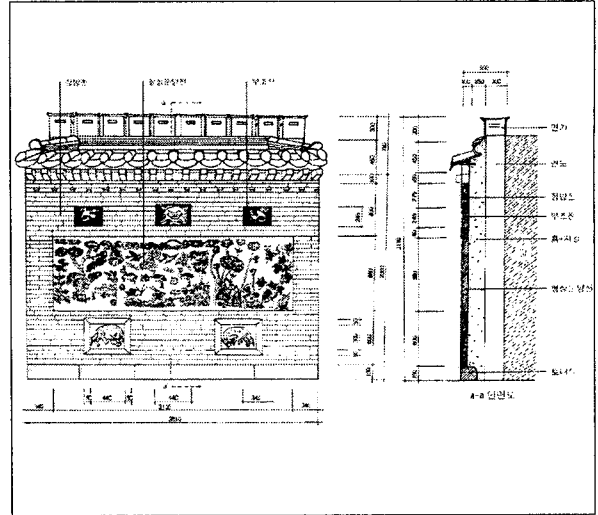


그림 6. 경복궁 자경전후원의 십장생굴뚝문양과 구성재료

이다. 담과 굴뚝에 공통적인 문양 중에서는 ⑦수평점선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굴뚝과 담에 거의 같은 비율이며, 게다가 18 종류의 문양 중에 각각의 대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이다. 굴뚝에서 볼 수 있는 ⑩십장생문은 단 1점밖에 없지만, 그 문양내용의 다양성과 장식성은 중요한 것이었음을 지적해 둔다.

4.3. 건축종별 유형과 문양

문양을 채취한 건축은 조선조의 궁궐, 사원, 민가로 구분된다. 궁궐은 왕의 집무장소와 왕족의 생활공간이 포함된 건축을, 사원은 불교사원의 건축을, 민가는 상류계층에 속하는 고급관료의 사저건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축종별과 각 문양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본다.

(1)궁궐: 궁궐의 건축 57사례 중에는 413점의 문양수가 나타나며, 1사례 당 7.2점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 숫자는 후술하는 사원이나 민가의 1.2점과 1.3점에 비교해서 궁궐에서의 문양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궁궐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도 많아, ③수직교직문 ④사선교직문 ⑨육각석쇠문 ⑩능형석쇠문 ⑪환상금문 ⑭동물문 ⑮십장생문 등 7종류를 들 수 있다.

⑥-1영롱문은 궁정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이다. 그러나 외편을 이용한 ⑧빗살문 ⑫파상선문 ⑬자유곡선문 3종류의 문양은 궁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다. 문양 수에서 비교해 보면 담에서는 ①운기문 ②문자문 ⑤회문이 많고, 이들 3종류의 문양이 궁궐의 담 문양 전체 수의 66.1%를 차지한다. 굴뚝에는 ⑭동물문이 특히 많이 장식되었고 ⑮식물문도 많다.

(2)사원: 사원건축 92사례에 120점의 문양이 나타나며, 1사례 당 1.3점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은 ⑦수평점선문이고, 담과 굴뚝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볼 수 있다. 굴뚝에는 사용되지 않고 담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은 ②문자문 ⑤회문 ⑮식물문 ⑯일월성신문이다. 굴뚝에만 표현된 문양은 없다.

(3)민가: 민가의 건축 131사례에서는 152점의 문양을 볼 수 있고, 1사례 당 1.2점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민가에 많이 나타나는 문양은 ⑦수평점선문이고, ⑤회문 ⑥-2영롱문 ⑧빗살

문 ⑬자유곡선문은 담에서만, 반대로 ⑮식물문은 굴뚝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민가에서는 담에서만 볼 수 있는 ⑧빗살문의 비율이 높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사원과 민가의 문양을 비교해 보면, ①운기문과 ⑥영롱문은 민가에서는 볼 수 있지만, 사원에서는 볼 수 없다. 반대로 사원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으로 ⑯-1일월성신문이 있다. 또, 사원과 민가를 합산한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문양으로는 ⑦수평점선문과 ⑬기타문양의 거의 대부분이, ⑧빗살문 ⑫파상선문 ⑬자유곡선문의 전부가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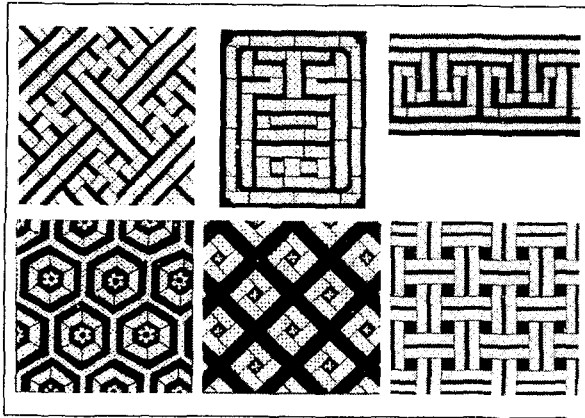
4.4. 구성재료별 유형과 문양

각 문양을 구성하는 주재료인 전(塼)과 외편(瓦片) 및 모르타르재·줄눈마감재인 삼화토(三華土)와 흙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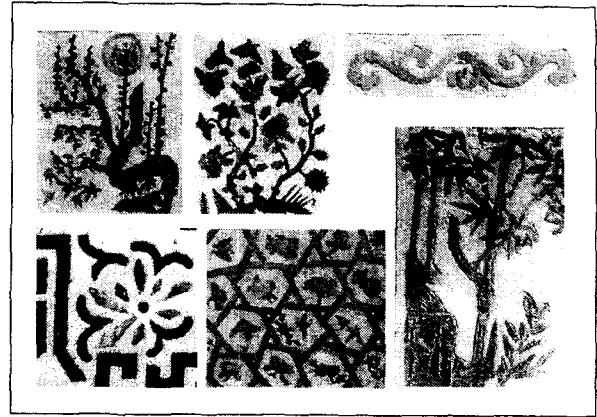
전은 3종류로 구별되며, 벽돌형태의 장방전(220~230mm×110~115mm×45~50mm), 구상형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형상문양전, 방형에 부조를 한 부조전이다(그림 5, 그림 6). 전은 붉은색과 회흑색 두 종류가 있으며, 소성방법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회흑색의 전은 소성가마에 물을 주입하여 수증기를 채워서 소성한다. 붉은색 전은 철분이 많은 소지를 이용해서 소성가마에 물을 주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성한다. 형상문양전(形狀文樣塼)은 별지화(別紙畵:밀그림)의 크기에 맞춘 두께 100~110mm의 흙판에 문양이 10~15mm정도 돌출되도록 부조를 하고 적당한 크기의 방형판(方形板)으로 자른 다음 소성한다. 작은 형상문양전은 방형판이 아니고 문양자체의 형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부조전은 문양이 卍문양이 되도록 부조된 방전(方塼)이다. 이 전은 소성상의 한도 때문에 크기가 제한되어, 조사대상 중 가장 큰 부조전이 450mm×450mm이고, 가장 작은 것은 230mm×160mm으로 두께는 100~110mm이다.

외편은 전과 같은 제조법으로 만들어진다. 외편으로 만든 문양은 지붕기와를 교체할 때 생기는 기외편을 재활용한 것이다. 외편을 쌓기 위해 사용되는 흙에는 돌이나 석회 등의 재료를 혼합해서 사용한다. 모래나, 삼(麻), 짚, 동물의 털 등을 섞어서 사용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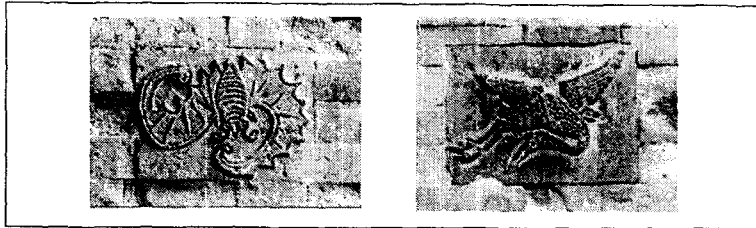
삼화토는 백색으로 장방전이나 형상문양전을 쌓을 때에 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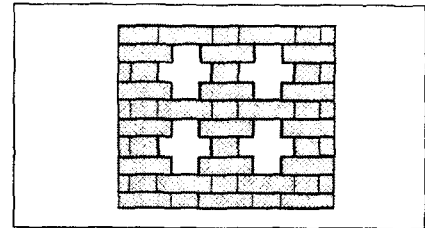
7-1 기하학문양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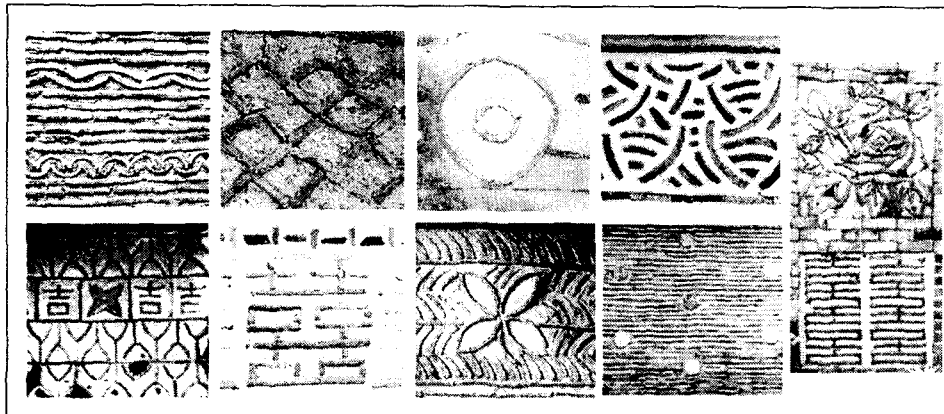
7-2 별지화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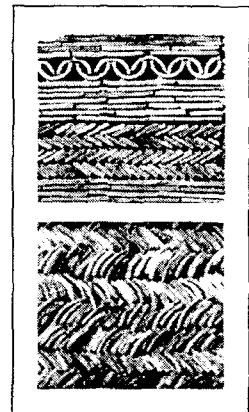
7-3 부조전쌍기



7-4 영롱쌍기



7-5 눈박이쌍기



7-6 외편영비거쌍기

그림 7. 장식기법별(조적법)에 의한 유형

분을 메우는 표면화장재 및 모르타르재·줄눈마감재로서 사용한다. 삼화토는 강회(剛灰):석비레(石飛與):모래를 1:1:1로 혼합해서 만들어진다⁹⁾. 삼화토는 전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외장재로서 내구성이 높은 재료이다.

여기에서 구성재료별로 각 문양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본다.

(1)장방전+삼화토: 장방전과 삼화토를 구성재료로 한 문양 282점의 약 91%는 담의 장식에 이용되고, 그 중 약 82%를 ①운기문 ②문자문 ⑤회문 ⑨육각석쇠문이 차지하고 있다. 이 구성재료를 골뚝에 이용한 문양은 ①운기문 ②문자문 뿐이다. 그밖에 둥근 돌을 함께 박아 넣은 ⑩·2일월성신문과 외편의 곡선부분을 함께 이용한 ⑧기타문양이 각각 약소한 1사례 뿐이지만 독특한 조형이다. 또 ⑥·1영롱문 ⑦수평점선문에 쓰여진 장방전은, 막대기 상태의 특별 제작된 것으로 기성제품으로 양산되던 벽돌상태의 장방전과는 다르다.

(2)형상문양전+삼화토: 구상적 형상문양형이나 곡선문양형의

표현에 적합하며, ⑩환상금문 ⑭동물문 ⑮식물문 ⑯십장생문 ⑰기타 문양 등 5문양을 볼 수 있다. 이들 문양은 장방전으로 만들 수 없는 문양이고, 특히 ⑮식물문에는 이 형상문양전+삼화토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

(3)부조전: 77점의 ⑭동물문 중 66점이 부조전으로 만들어졌으며, 부조전을 이용한 문양은 전부가 ⑭동물문이다. 부조전의 표면은 평면에서 7~8mm 돌출되어 있고, 형상문양전과 달리 표면의 뒀면이나 이음매를 삼화토로 화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조한 동물의 형태나 색깔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양이 된다.

(4)외편+흙: 외편과 흙을 번갈아가며 쌓아가는 문양으로 외편은 담이나 골뚝의 장식재이자 구조재이기도 하다. 전체 18종류의 문양 중 8종류가 외편+흙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중 ⑦수평점선문 ⑧빗살문 ⑫파상선문 등 3종류 문양이 이 재료에 의한 장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외편+흙+석회: 외편+흙으로 구성된 문양의 흙으로 된 부분의 표면에 백색 화장재인 석회를 덧발라 마감한 것으로 이처럼 사용되는 경우를 면회(面灰)했다고 한다. 외편+흙이나 외편

9)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231, 1996

+흙+돌과 비교해서 표면 전체의 마감처리가 세밀해지고 내구성도 높아진다. 여기에서도 ⑦수평점선문이 이 구성재료에 의한 장식문양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굴뚝표면을 석회로 회계 장식한 ⑩기타 문양도 눈에 띈다.

(6)외편+흙+돌: 외편+흙의 문양에 작은 돌맹이를 장식재 및 구조보강재로서 첨가하고 있다. 표면의 마감이 거칠고 소박한 인상을 준다. 이 재료의 혼합은 6종류의 문양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외편을 소재로 한 분포와 비슷하며, ⑦수평점선문과 ⑧빗살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외에 둥근 돌을 이용해서 우주를 표현한 ⑪-1일월성신문은 5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특이한 문양이다.

여기에서 위에 언급한 (4), (5), (6)을 외편+흙이라는 공통소재 항목으로 포괄하면, ⑦수평점선문의 163점 중 153점과 ⑩기타 문양의 23점 중 20점, 그리고 ⑧빗살문 ⑫파상선문 ⑬자유곡선문 등 3종류의 문양 전부가 이 외편+흙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편을 주요한 소재로 하는 문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장식기법별(조적법) 유형과 문양

장식기법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정해진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수집한 685점의 문양을 조적법(부착법도 포함한다)별 문양형태에 의해서 6종류로 유형화를 시도하여 각각의 문양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1)기하학문양쌓기: 장방전 측면의 장변과 단변을 이용한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에 의한 문양(그림 7-1)으로 9종류의 문양이 이에 속한다. 어느 문양이나 전과 전의 좁은 이음매 부분은 매우 얇고, 그 밖의 일반 이음매 줄눈은 삼화토를 이용하여 전의 면보다 2~3mm 돌출되도록 볼록줄눈화장으로 마감하는 고급기술을 요하는 기하학적인 조형이다. ③수직교직문 ④사선교직문 ⑨육각석쇠문 ⑩능형석쇠문 4종류는 이 기하학문양쌓기에 의해서만 시문되는 문양이고, ①운기문 ②문자문 ⑤회문 ⑥영롱문 4종류도 각각 90% 이상이 이 기법에 의한 문양이다.

(2)별지화쌓기: 길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화조나 상상의 동·식물 등의 구상적 모티브에서 형태를 딴 형상문양전을 장방전을 나란히 쌓는 중에 박아 넣으며, 별지화(밀그림)에 맞추어 쌓아 가는 문양이다(그림 7-2). 문양의 부조 ㅍ부분이 주위의 장방전의 면보다 조금 돌출 되도록 쌓은 다음 ㅍ면을 삼화토로 면회하는 별지화쌓기는, 확실히 구상적 형상문양의 표현에 적합한 조적법으로 형상문양전으로 만들어진 ⑭동물문 ⑮식물문 ⑯십장생문의 전부가 이 장식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3)부조전쌓기: 방형의 부조전(그림 7-3)을 장방전의 나란한 문양 속에 박아 넣는 기법이다. 별지화쌓기와는 달리 ㅍ부분을 삼화토로 면회하지 않는다. 이 기법은 단지 ⑭동물문을 위한 것이다. 부스러지기 쉬운 돌이 석인 백색 흙이나 황조사(黃組砂)에 석회를 섞어 만들어진 것을 모르타르재로서 사용하고 이음매를 매우 얇은 기법으로 백색 삼화토를 이용한 문양과는 차이를 보이는 장식기법이다.

(4)영롱쌓기: 전으로 쌓은 벽면이나 낮은 담 등에 채광·환기·장식을 위해 작은 관통구멍을 만드는 조적법이다(그림 7-4). 이 장식기법은 강원도 강릉시 선교장(민가)의 ⑥영롱문 1례만 볼 수 있었다.

표 3. 대상별·건축종별과 구성재료별 관련표

대상별·건축종별	구성재료별	전			외편			소계	계	
		장방전+삼화토	형상문양전+삼화토	부조전	외편+흙	외편+흙+석회	외편+흙+돌			
대상별	담	258	31		75	17	55	436	685	
	굴뚝	24	37	66	39	73	10	249		
건축종별	궁궐	담	255	31				286	413	
		굴뚝	24	37	66			127		
	사원	담				44	8	21	73	120
		굴뚝				27	20		47	
민가	담	3			31	9	34	77	152	
	굴뚝				12	53	10	75		
각 항목별 소계		282	68	66	114	90	65	685		
계		416(60.7%)			269(39.3%)			685		

(5)눈박이쌓기: 토담을 쌓을 때 적당한 작은 돌맹이를 섞어 쌓거나 외편을 박아넣어 장식하는 것을 「눈박이」라고 한다(그림 7-5)¹⁰⁾. 이 기법은 외편의 곡선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직선상태로 박아 넣는 등, 기와의 재료형상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낸다. 외편의 직선부분을 이용한 ⑦수평점선문 ⑧빗살문, 곡선부분을 이용한 ⑫파상선문 ⑬자유곡선문, 그것들을 혼합한 ⑪일월성신문 ⑩기타문양의 거의 대부분 혹은 전부가 눈박이쌓기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양이다.

(6)외편영버겨쌓기: 흙으로 만들어진 담이나 굴뚝의 기본구성체의 바깥쪽에 모르타르재를 이용하지 않고 외편만을 겹쳐 쌓는 기법이다(그림 7-6). ⑧빗살문 ⑫파상선문 ⑬자유곡선문 ⑩기타문양 등이 각각 극히 적지만 이 장식기법을 이용해서 쌓고 있다. 그러나 소재의 양감을 느낄 수 있지만 구조적인 불안정함을 부인할 수 없다.

5. 유형 항목 상호의 관련성

표 2의 유형화에 의한 고찰에 덧붙여 각 유형항목 상호의 관련성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하여 표 3, 표 4, 표 5를 작성했다.

5.1. 대상별·건축종별과 구성재료별 관련성

표 3의 대상별과 구성재료별의 관련을 살펴본다. 담을 구성하는 재료는, 전을 사용하는 것과, 외편을 사용한 것이 약 2:1의 비율이 되고 있다. 굴뚝에서는 전을 사용한 것과, 외편을 사용한 것이 거의 같은 비율이다. 또 담에서는 장방전+삼화토의 구성재료가 압도적으로 많고, 굴뚝에서는 외편+흙+석회, 계속해서 부조전을 재료로 한 것이 많은 것을 이 표로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건축종별과 구성재료별 관련을 보면 궁궐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은 전부가 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궁궐의 집무계 건축의 담과 굴뚝에서는 회색의 전을 사용한 것이 많고, 주거계 건축에서는 붉은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붉은색 전과 회색색 전인 장방전+삼화토를 구성재료로 한 문양은, 궁궐에서의 총 문양 수 413점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10) 조정현: 꽃담, 대원사, 80, 1996

표 4. 대상별·건축종별과 장식기법별 관련표

대상별·건축종별	장식기법별	장식기법별							소계	계
		기하학문양쌓기	별지화쌓기	부조전쌓기	영롱쌓기	눈박이쌓기	외편 영비겨쌓기	소계		
대상별	담	255	31		1	146	3	436	685	
	굴뚝	24	37	66		116	6	249		
건축종별	궁궐	담	254	31			1		286	413
		굴뚝	24	37	66				127	
	사원	담					70	3	73	120
		굴뚝					43	4	47	
	민가	담	1			1	75		77	152
		굴뚝					73	2	75	
각 항목별 소계		279	68	66	1	262	9	685		

사원과 민가에서는 담에 전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3점 뿐으로, 그 이외의 전부가 외편을 이용하고 있다. 사원에서는 외편+흙의 재료구성이 많고 민가에서는 외편+흙에 석회를 바른 것이 다소 많지만, 외편을 이용한 구성재료별 3유형이 대략 평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5.2. 대상별·건축종별과 장식기법별 관련성

표4로부터 담의 장식기법으로는 기하학문양쌓기와 눈박이쌓기가, 굴뚝은 눈박이쌓기와 부조전쌓기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눈박이쌓기는 담과 굴뚝에 공동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건축종별에서 살펴보면 궁궐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은 기하학문양쌓기, 별지화쌓기, 부조전쌓기 3종류의 장식기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예외적인 눈박이쌓기의 1사례를 제외하고 사원과 민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궁궐에서만 사용된 규범적인 장식기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하학 문양쌓기의 문양은 이들 장식기법 중에서 67%를 차지하여 궁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장식기법이었다.

사원에서는 눈박이쌓기와 외편영비겨쌓기 2종류의 장식기법만을 볼 수 있다. 그 중 눈박이쌓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외편영비겨쌓기는 몇 점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외편영비겨쌓기 장식기법은 다량의 외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원과 같이 건축물의 규모가 커서 외편의 다량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민가의 담과 굴뚝장식 역시 대부분이 눈박이쌓기로 축조되었다. 다만 사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하학문양쌓기와 영롱쌓기가 각각 1사례씩 있다.

이처럼 사원과 민가에서 같이 사용되었던 장식기법을 볼 때, 궁궐의 담문양인 ㉓-2일월성신문 1사례를 예외로 하는 경우에는 눈박이쌓기와 외편영비겨쌓기는 궁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원과 민가의 담과 굴뚝을 장식하는 장식기법은 눈박이쌓기와 외편영비겨쌓기가 규범적인 장식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5. 장식기법별과 구성재료별 관련표

장식기법별	구성재료별	전			외편			소계	계
		장방전+삼화토	형상문양전+삼화토	부조전	외편+흙	외편+흙+석회	외편+흙+들		
기하학문양쌓기	담	255						255	279
	굴뚝	24						24	
별지화쌓기	담		31					31	68
	굴뚝		37					37	
부조전쌓기	담								66
	굴뚝			66				66	
영롱쌓기	담	1						1	1
	굴뚝								
눈박이쌓기	담	2			72	17	55	146	262
	굴뚝				34	73	9	116	
외편영비겨쌓기	담				3			3	9
	굴뚝				5		1	6	
소계		282	68	66	114	90	65	685	
계		416(60.7%)			269(39.3%)			685	

5.3. 장식기법별과 구성재료별 관련성

표 5에서 중요한 관련성으로서, 장방전+삼화토의 구성재료에서는 기하학문양쌓기가, 형상문양전에서는 별지화쌓기가, 부조전에서는 부조전쌓기가 각각 장식기법으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외편을 구성재료로 하는 것의 전부가 눈박이쌓기 혹은 외편영비겨쌓기를 장식기법으로 하고 있다.

6. 결론 및 금후 연구과제

이상은 채취 문양 685점의 유형화를 시도한 것으로 문양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목적인 조선조 담과 굴뚝 문양의 문화적인 자리매김과 역할에 대해서 궁궐형, 사원형, 민가형으로 칭하는 문양의 유형화를 고찰하여 이들 조형의 특성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궁궐형 문양

궁궐에는 18종류의 문양 중 15종류의 문양을 볼 수 있다. 담에는 14종류의 문양이, 굴뚝에는 5종류의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담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문양은 운기문(云氣文)과 문자문이고, 굴뚝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문양은 동물문과 식물문이다. 이들 문양은 수평점선문을 제외한 전부가 특정의 의미내용을 조형화 한 것으로, 장수와 초복강령의 길상이나 벽사를 표현한 문양이었다. 특히 길상을 나타내는 환상금문과 십장생문, 벽사를 나타내는 수직교직문, 사선교직문, 육각석쇠문, 능형석쇠문, 거기에 길상과 벽사를 동시에 나타내는 동물문 등 7문양은, 궁궐이 전유(專有)하는 문양이었다. 궁궐에서 볼 수 있는 15종류 전체 문양은 장방전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하학문양쌓기, 형상문양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화쌓기, 부조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조전쌓기로 하는 장식기법을 규범으로 하고, 이 중 장방전과 형상문양전을 이용한 문양에는 삼화토를 이용해서 화장쌓기하는 것이 궁궐의 문양장식방법이었다. 거기에 붉은색 전 또한 궁궐에서만 사용되던 재료이고, 붉은

색과 삼화토의 흰색이 엮어내는 다채로운 전의 문양이 궁궐에 한해서 전개된 것도 언급해 두고자 한다.

(2) 사원형 문양

사원에서는 18종류의 문양 중 9종류의 문양을 볼 수 있다. 담과 굴뚝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사원의 대표적 문양은 수평점선문이다. 다음으로 파상선문, 빗살문 순으로, 어느 것이나 외편을 이용한 조형이 특징이 되어있다. 사원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양은 없다. 벽사를 표현하는 문양도 볼 수 없다. 사원의 문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구성재료는 외편+흙이었다. 사원문양의 장식기법은 많은 수가 눈박이쌓기로 장식되었지만 일부에는 외편언버겨쌓기도 나타난다.

사원형 문양은 토담이나 굴뚝의 구조보강재로서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였다. 특히 외편은 지붕재의 재활용으로 장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는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3) 민가형 문양

상류민가 건축에서는 18종류의 문양 중 10종류의 문양을 볼 수 있었다. 문양의 분포나 구성재료, 장식기법 등은 사원형 문양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길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양의 종류가 사원보다는 많아서 외편으로 만들어진 직선문양형의 운기문과 문자문, 회문, 또 곡선문양형의 파상선문, 구상적형상문양인 식물문 등을 볼 수 있다. 사원과 마찬가지로 벽사를 나타내는 문양은 볼 수 없다. 구성재료는 외편+흙+석회가 다수를 차지하며, 표면을 석회로 면회하는 것으로 내구성과 장식효과를 높여왔다. 장식기법은 눈박이쌓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드물게 외편언버겨쌓기도 볼 수 있었다. 또 극히 적은 3점의 예외적인 사례지만 궁궐의 문양장식의 규범이 되어 있던 장방전+삼화토의 재료구성이 민가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3문양형은 유형 분류기준 중 건축종별과 일치하는 것으로 건축종별에 따라 문양의 종류, 구성재료, 장식기법 등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사원형과 민가형은 문양의 종류, 구성재료, 장식기법 등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 문양의 유형은 궁궐형—사원·민가형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문양의 조형적 특성에 있어서는 궁궐에 시문된 문양은 전과 삼화토를 이용한 섬세하고 장식적인 외관과 내구성있고 정리된 마감처리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사원·민가형의 문양은 외편을 주재료로 하며 흙이나 석회 등을 마감재로 사용하여 궁궐형 문양들에 비하여 거칠고 소박한 모양새이다.

이처럼 같은 문양이라 할지라도 건축종별로 달라지는 문양격식의 차이는 조선조 사회적 신분에 따른 가사규제가 담과 굴뚝의 장식문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덧붙여, 조선조의 문양의 유형화에 있어서 문양의 의미내용은 대상, 건축종별, 구성재료, 장식기법과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추측되지만, 그것들에 대한 고찰은 가사규제 등의 역사성을 포함하여 후속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조선시대의 담·굴뚝에 나타나는 전·외편 문양은 왕실의 권위, 양반계급의 신분과서, 역불정책시기의 사찰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신분의 차별화를 상징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건축양식 및 규모, 재료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다양한 문양의 예술적 표현이나 기법이 발휘될 수 없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 담·굴

뚝의 전·외편 문양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 보여지는 장식 욕구와 미적감각을 나타내는 환경디자인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대 환경도자조형물의 한 유형인 도자 벽장식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환경도자조형물의 위상은 석재나 금속 등 타 재료에 의한 조형물에 비교하여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재료로서, 재료의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건축환경의 창출요소로서 쓰여져 왔음을 알게된다. 따라서 도자재가 벽장식 등 건축물의 내·외부 장식마감재로서 좀더 적극적인 쓰임새를 갖게 되려면, 다양한 건축환경에 걸맞는 표면색채 및 질감 표현기법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시도와 좀더 합리적인 경제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문양의 내용에 있어서도 가속화되어 가는 도시화의 삭막함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정서와 심미안 계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조화시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 권 지 8, 예종 문효대왕 8년 (1113)
- 삼국사기, 권 제 33, 지 제2 옥사조
- 서유구, 임원십육지 2-2권,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1966
- 송민구, 한국의 옛 조형의미, 기문당, 1987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6
- 신영훈·조정현,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기문당, 1990
- 신영훈 외, 한국의 고궁건축, 열화당, 1988
- 조정현, 꽃담, 대원사, 1996
-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5
- 홍만선, 산림경제 제1권, 민족문화추진회, 1982

조사대상지 일람

① 서울

- 경복궁
- 창덕궁
- 덕수궁
- 운현궁
- 남산전통한옥골 박영효 가옥 (서울시민속자료 18호)
- 남산전통한옥골 김춘영 가옥 (서울시민속자료 8호)
- 종로구 석파정 (시 유형문화재 23호)
- 종로구 가회동 31번지 일대

② 경기도

- 용인민속촌 3개소

③강원도

- 양양군 낙산사
- 강릉시 선교장 (중요민속자료 5호)
- 강릉시 허난설헌 고택 (강원도 문화재자료)
- 강릉시 해운정 (보물 183호)
- 강릉시 방해정 (강원도 유형문화재 50호)
- 고성군 왕곡마을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제1호) 11개소

④충청북도

- 보은군 속리산 범주사
- 괴산군 김기웅 가옥 (중요민속자료 136호)

⑤충청남도

- 공주군 마곡사 (문화재 자료 66호)
- 아산군 봉곡사 (문화재자료 323호)
- 아산군 외암리 민속마을 (중요민속자료 195호) 2개소
- 아산군 맹씨행단 (사적 109호)
- 예산군 이남규 고택 (충남 유형문화재 68호)
- 예산군 이광임 고택 (충남 유형문화재 83호)

⑥전라북도

- 부안군 내소사
- 전주시 금산사
- 고창군 선운사
- 고창군 김정희 가옥 (전북 민속자료 29호)
- 고창군 모양성 (사적 145호)내 2개소
- 고창군 신재효 고택 (중요민속자료 39호)
- 부안군 김상만 가옥 (중요민속자료 150호)
- 고창군 현곡정사 (전북 유형문화재 57호)

⑦전라남도

- 해남군 대흥사
- 승주군 동화사
- 승주군 송광사
- 구례군 화엄사
- 지리산 쌍계사
- 보성군 대원사
- 담양군 소쇄원 (사적 304호)
- 보성군 이금재 가옥 (중요민속자료 157호)
- 보성군 이용옥 가옥 (중요민속자료 159호)
- 보성군 이식래 가옥 (중요민속자료 160호)

⑧경상북도

- 안동군 봉정사
- 청도군 운문사
- 경주시 양동마을 (중요민속자료 189호) 6개소
- 경주시 교동 이운장 가옥
- 경주시 안강읍 독락당 (보물 413호)
- 경주시 옥산서원 (사적154호)
- 청도군 도일 고택 (문화재자료 271호)
- 청도군 섬암(剡巖)고택 (문화재자료 268호)
- 청도군 운강 고택 (중요민속자료 106호)
- 안동시 하회마을 (중요민속자료 122호) 11개소
- 안동시 퇴계 태실 (경북 민속자료 60호)
- 안동시 의성김씨 종택 (보물450호)
- 안동시 광산김씨 재실 및 사당 (경북 유형문화재 27호)
- 안동시 퇴계 이황 종택 (경북기념물 42호)

- 안동시 임청각 군자정 (보물182호)
- 안동시 병산서원 (사적 260호)
- 안동시 청원루 (경북 유형문화재 199호)
- 예천군 권씨종택 (중요민속자료 201호)

⑨경상남도

- 양산군 통도사
- 밀양군 표충사
- 내천군 해인사
- 산청군 단성면 조씨 고택 (경남 문화재자료 165호)
- 산청군 단성면 이상택 고택 (경남 문화재자료 118호)
- 산청군 단성면 권씨 고택 (경남 문화재자료 164호)
- 산청군 단성면 최씨 고택(경남 문화재자료 117호)
- 창녕군 아석헌
- 창녕군 하병수 가옥(중요민속자료 10호)
- 함양군 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186호)